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3. 31.(금) 06:00 < 3.31.(금) 석간 > 배포 2023. 3. 30.(목)

‘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발표

- ‘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, 전년 대비 34.6% 성장한 1.8조원 규모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(회장 김형욱, 이하 협회)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매출, 인력 및 고용, 투자, 수출·입 등을 포함한 ‘2021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’ 결과를 발표했다.

디지털헬스케어란 통상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진단·치료하고 건강의 유지·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의미하며,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8.9%(의약품 64.4%, 의료기기 20.2%) 규모이다.

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질병의 사후적 진단·치료에서 선제적 예방·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6년간(’14~‘20) 연평균 39% 성장하였으며, 향후(’20~‘27)에도 연평균 18.8%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.

동 조사는 국내·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산업동향 파악 필요성에 따라 산업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’21년(’20년 기준)부터 시작해 이번이 두 번째 실태조사이다.

우선,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3가지 분류기준(서비스 제공 목적, 수단, 방식)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헬스케어 분류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.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, 기존 분류체계를 포괄할 수 있는 이번 분류체계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.

20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, 상세 내용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(www.kodhia.or.kr)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

❶ (매출) ‘21년 기준 1조8,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.6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의료용기기 매출이 9,731억원(53.4%)으로 가장 높으며, 건강관리 기기(2,546억원),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(2,250억원)이 그 뒤를 이었다.

<’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매출 주요 품목> (단위: 억원)

구분	매출	비중
· **의료용 기기** * SiMD(Software in Medical Device), 전자약 등	9,731	53.4%
· **건강관리 기기** * 웨어러블 기기, 생체데이터 수집 센서 등	2,546	13.9%
· **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** * 마켓플레이스형, 웰니스플랫폼 등	2,250	12.3%

❷ (인력 및 고용) 전체 종사자 수는 13,033명으로 전년 대비 10.7% 증가하였고,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(72%)을 차지하였다.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7.15명으로 지난해 8.7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이는 빠른 매출 성장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, 전체 산업평균(5.73명)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❸ (투자)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 투자액은 총 4,951억원으로 전년(2,967억원) 대비 약 66.8% 증가하였다. 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비가 전년비 281% 증가한 1,448억원으로 파악되었으며, 연구개발비(R&D) 또한 전년비 35.4% 증가한 3,502억원으로 조사되었다.

<자체투자 추이> (단위: 억원)

구분	2020	2021	YoY
· 연구개발비	2,587	3,502	35.4%
· 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투자비	380	1,448	281.0%
· 합계	2,967	4,951	66.8%

❹ (투자유치) 국내·외 총 투자유치액은 1조6,931억원을 기록하였다. 의료용기기 투자유치액이 가장 많은 6,210억원으로 전체의 36.7% 규모로 파악되었으며, 의료인·환자간 매칭 플랫폼(21.7%), 의료용 소프트웨어(19.3%) 등이 뒤를 이었다.

<’21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투자유치 주요 품목> (단위: 억원)

구분	총 투자유치액	비중
· **의료용 기기** * SiMD(Software in Medical Device), 전자약 등	6,210	36.7%
· **의료인간, 환자간 매칭 플랫폼** * 원격의료, O2O 플랫폼, 메타버스 등	3,680	21.7%
· **의료용 소프트웨어** * 디지털치료제, SaME(Software as a Medical Device)	3,271	19.3%
· **디지털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/인프라** * EMR, EHR, PHR, 병원운영시스템, 마이헬스웨이 등	1,802	10.6%

❺ (수출 및 수입) 수출액은 7,992억원으로 전년(7,582억원)대비 5.4% 증가했으며, 수입액은 721억원으로 전년(587억원)대비 22.7% 증가하였다. 의료용 기기가 수출, 수입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수출에서는 의료용 소프트웨어(전년비 69.1%), 수입에서는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(전년비 142.3%)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.

<디지털헬스케어산업 수출입 변화 추이(‘20~’21년)> (단위: 백만원)

구분	수출			수입		
	2020	2021	YoY	2020	2021	YoY
· **의료용 기기** * SiMD(Software in Medical Device), 전자약 등	653,122	682,280	4.5%	52,556	65,959	25.5%
· **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** * 마켓플레이스형, 웰니스플랫폼 등	8,530	9,065	6.3%	520	1,260	142.3%
· **의료용 소프트웨어** * 디지털치료제, SaME	6,199	10,482	69.1%	520	600	15.4%
· **건강관리 기기** * 웨어러블 기기, 생체데이터 수집 센서 등	81,162	88,240	8.7%	5,110	4,240	-17.0%

【붙 임】 ´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(요약)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실 바이오융합산업과	책임자	과 장	송영진 (044-203-4290)
	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429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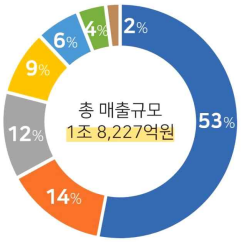
붙임 ’21년도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실태조사 결과(요약)

2021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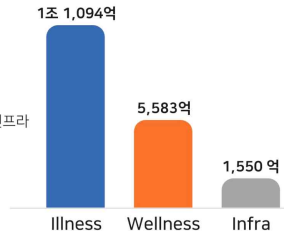
조사대상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301개사
조사기간 2022.09.26~2022.12.22
조사기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

디지털 헬스분야 매출 현황

분야별 매출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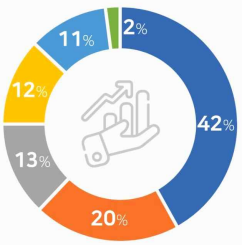


- 의료용 기기
- 건강관리 기기
-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
- 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/인프라
- 의료인 간/의료인-환자 간 매칭 플랫폼
- 건강관리 솔루션
- 의료용 소프트웨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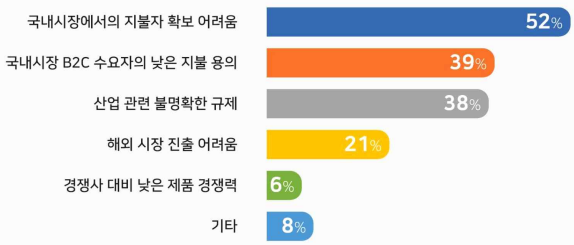
Illness	의료용기기, 의료용 소프트웨어, 의료인 간, 의료인-환자 간 매칭플랫폼
Wellness	건강관리 기기, 건강관리 솔루션,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
Infra	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/인프라

매출액별 분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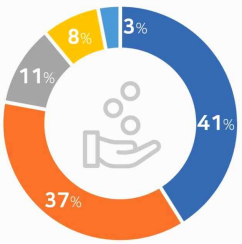
- 매출발생 이전
- 5억 미만
- 5억 이상 ~ 10억 미만
- 10억 이상 ~ 50억 미만
- 50억 이상 ~ 500억 미만
- 500억 이상

매출발생 허들



투자 및 수출입 현황

투자유치단계



- Seed
- Series A
- Series B
- Series C
- Series D 이상

분야별 수출 및 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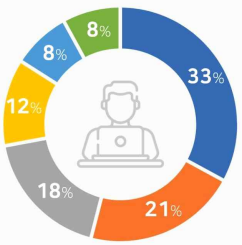


총 수출규모 7,992억원

총 수입규모 721억원

디지털 헬스분야 인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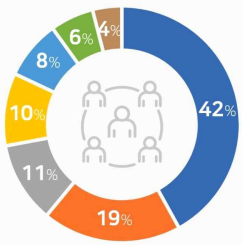
종사자 규모별 분포



- 5인 미만
- 5 ~ 10인 미만
- 10 ~ 30인 미만
- 30 ~ 50인 미만
- 50 ~ 100인 미만
- 100인 이상

분야별 평균 인력 현황

※ 기타인력 제외



- 연구개발
- 구매영업 · 시장조사
- 설계 · 디자인
- 생산기술
- 품질관리
- 시험평가 · 인증
- 보증 정비